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코리아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8억 원

-모투자신탁 142억 원

펀드유형

-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 : 2014년 11월 19일
- 클래스 C-E : 2015년 04월 20일
- 클래스 S-P2 : 2014년 12월 19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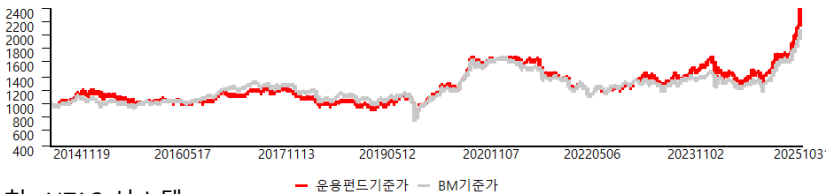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5.65%	36.50%	69.25%	69.38%	99.87%	103.28%	103.98%	137.14%
클래스 C	25.55%	36.04%	68.09%	66.98%	94.10%	94.42%	89.26%	100.76%
클래스 C-E	25.57%	36.18%	68.45%	67.72%	95.88%	97.14%	93.73%	85.91%
클래스 S-P2	25.59%	36.23%	68.56%	67.96%	96.45%	98.03%	95.30%	126.24%
벤치마크	19.94%	26.56%	60.66%	60.69%	80.31%	79.08%	81.17%	10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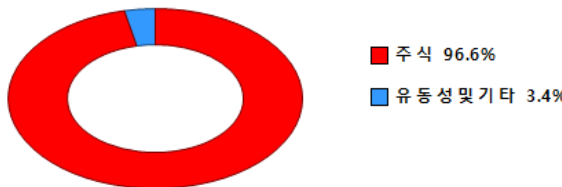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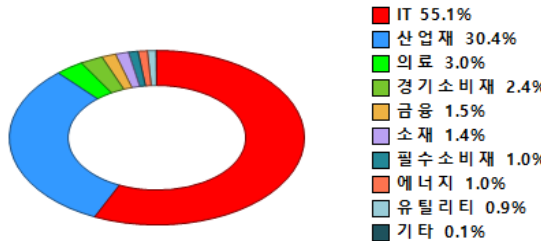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0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8.1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3.4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4.2	효성중공업	전기.전자	3.2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장비	3.5	이수페타시스	전기.전자	3.0
엘앤에프	전기.전자	3.5	한화오션	운송장비.부품	2.5
NAVER	IT 서비스	3.5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2.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1.535% (판매 0.95%)
- 클래스 C-E : 총 연 1.055% (판매 0.47%)
- 클래스 S-P2 : 총 연 0.93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54%,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9.94% 상승한 4,107.50pt, KOSDAQ은 6.94% 오른 900.42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AI 관련 투자 심리가 지속되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의 각국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재차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견인했고, 2차전지 관련 업종 및 자동차 업종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며 유통, 섬유·의복,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50% 상승한 1,423.2원을 기록했으며,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23% 하락한 60.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5조 9,350억 원, 기관투자자는 1조 2,100억 원을 순 매수했으며, 개인투자자는 6조 7,61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AI 투자 수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레거시 아이템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 효과가 가장 큰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세와 향후 데 이터 센터향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관련된 전력기기, 원전, ESS 주식들의 상승세도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되, 상대적 모멘텀 열위에 있는 종 목을 선별해 압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기계, 반도체 업종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자동차, 철강, 화학 업종의 시 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리튬 가격 반등으로 재고 평가충당금 환입이 기대되고 LFP ESS 대응으로 새로운 성장성 확보가 예상되는 엘앤에프, 예상보다 강력 한 AI 수요로 인해 레거시 아이템 가격까지 오르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SK하이닉스, ASIC 시장에서 다변화된 고객군 확보에 따라 중장기 성장성이 확보된 이수페타스시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 다. 반면, 전력기기 모멘텀 강화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 HD현대일렉트릭의 미보유 효과, 자회사 삼 성바이오에피스와의 분할 과정에서의 밸류에이션 확대가 예상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과 미국의 관 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반영된 기아의 시장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 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국내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OSPI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pt를 상회한 가운데, APEC 이후 발표된 글로벌 AI 파트너십 강화 및 산업 협력 기대감이 모멘텀에 힘을 더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양호한 3분기 실적 내용 또한 반도체 중심의 증시 상 승 흐름을 지속할 요인이며, 이러한 상승세가 2차전지를 포함한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관련 섹터로 확산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지 투자 요구 및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기화된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과 이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지연 등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와 AI 버블 가능성은 시장 상승 속도를 제 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월 초부터 극적으로 변화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가격 변화 전망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2025년 HBM을 중심으로 한 호조세가 전 아이템으로 확대되었고, 주요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대한 CAPEX 전망도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가고 있습니다. AI 투자의 무용론을 주장하기에는 관련 기술의 발전 에 따라 관련 서비스와 과금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AI 투자에 대한 의심으로 지금 버블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AI에 대한 투자는 향후 전력 공급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전력원에 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력원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원전, SMR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ESS 수요까지 올라가고 있 는 상황입니다. 특히 LFP ESS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퇴출되기 시작하면 서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 IT와 조선, 방산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국가 정책 주도로 성장성을 갖게 된 업종들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예전 세계화 시기와는 달리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국에 유리한 진영을 구축하기 위 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과잉투자로 보여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과거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예전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한 부담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국가 간 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긴 관점에서 주도주들에 대한 비중은 크게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되, 턴어 라운드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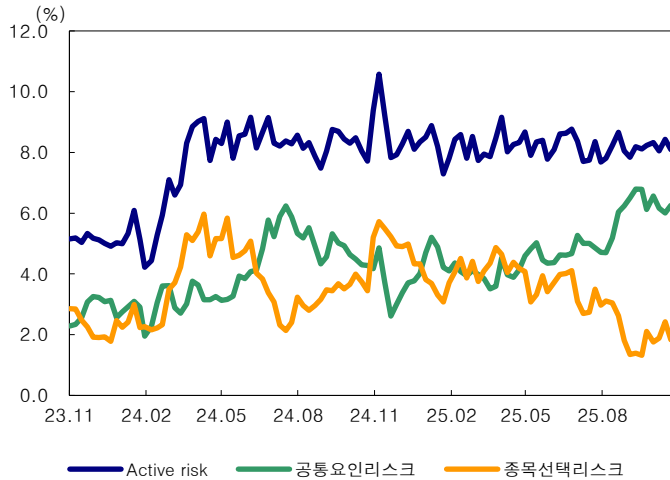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 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 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 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 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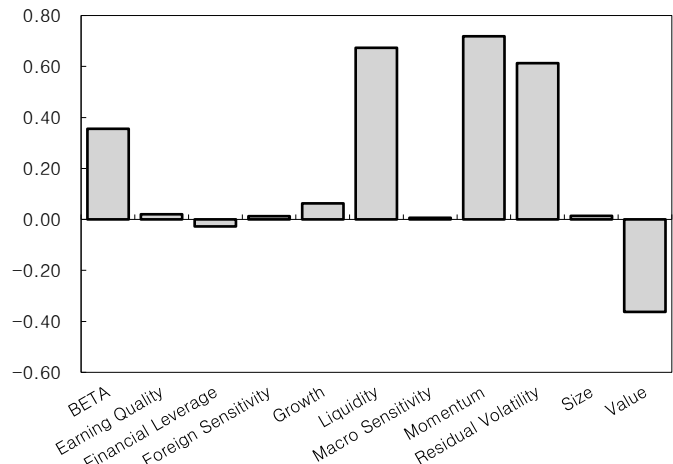
	2025-10-31	2025-09-30
Active Risk ¹	8.09%	8.28%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6.26%	6.80%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6.07%	5.85%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19%	0.96%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1.84%	1.48%
베타	1.23	1.13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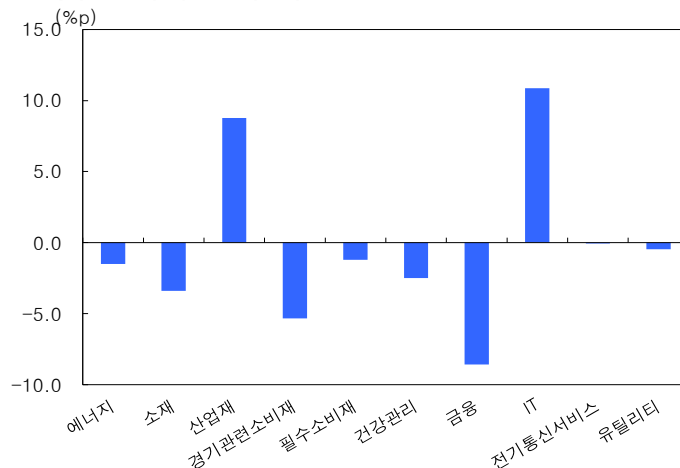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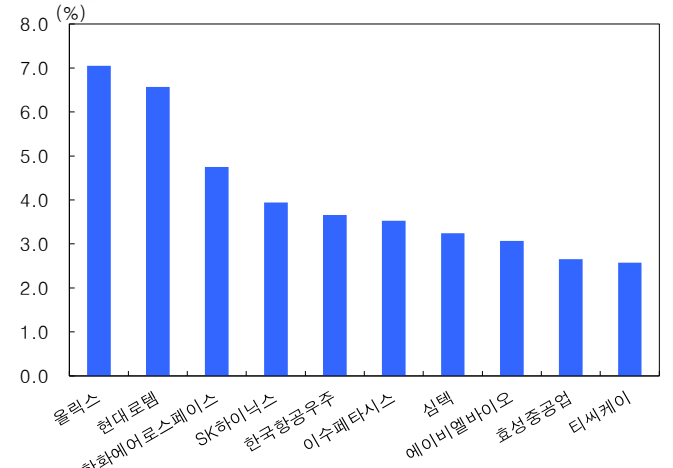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0월말 현재, 코리아리더스증권보[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8.09%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9개 종목 감소하여, 53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금융',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올릭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